

# “경영 핵심은 사람, 뇌 메커니즘까지 연구했다”

건설분야 SW 세계 1위  
마이더스아이티 이형우 대표

사람을 키우면 기업 성장이 따라와 신뢰의 수준이 성과의 수준 나타내 리더가 갖춰야할 ‘참용기’ 제시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이형우 마이더스아이티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에서 “경영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제가 창업 7년 만에 회사를 세계 1위로 만든 것은 인간의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영에 접목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마이더스아이티는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다. 8개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에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다. 2016년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소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형우 대표는 창업을 하면서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00년까지 직장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마흔의 나이에 독립해 마이더스아이티를 설립한 그는 사무실을 차린 후 가장 먼저 책상에 가서 경영에 관한 책을 열었다.

그는 “책에는 온통 돈 버는 방법과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했는데 경영의 핵심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때부터 사람과 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돈



을 움켜쥐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뜻의 ‘축록자불견산 확금자불견인(逐鹿者不見山 攬金者不見人)’이라는 명언에는 이 대표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경영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믿는 그는 “사람을 키우다 보면 기업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먼저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뇌의 메커니즘에서 찾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신뢰, 열정, 전략, 실행으로 작동되며 이 메커니즘을 알면 경영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을 통해 성과가 만들어지고 성과가 모여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더스아이티의 리더는 지시, 감독을 하지 않고 직원의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공 경험을 쌓



▲ 지난 11일 열린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이형우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 이형우 마이더스아이티 대표이사. /ESC 상생포럼

는 일이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다 쓰도록 도와주는 게 경영”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뢰의 수준이 성과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성원은 리더와 조직을 신뢰하는 만큼만 일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신뢰의 핵심 중 하나를 긍정으로 꼽은 그는 사장이 기본 좋으면 회사 전체가 밝은 분위기라며 “웃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더의 긍정성은 회사 전체 미래의 긍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한다는 그는 강연을 하는 중에도 미소를 띤 얼굴을 유지했다. 또 리더가 갖춰야 할 용기로 ‘참용기’를 제시했다. 이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결같이 사람에게 집중해온 그는 지금도 1년 중 채용과 관련한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마이더스아이티는 스펙, 징벌, 상대평가, 정년이 없는 4무(無) 정책을 지향한다. 스펙이 성

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채용 시에도 스펙을 보지 않는다. 3년 전에는 고졸 특별채용도 도입했다.

좋은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수많은 면접을 경험해봤지만 잠깐 보고 사람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역량검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인공지능(AI)면접솔루션을 통해 사람을 뽑고 있다.

AI면접을 통해 AI가 면접자의 혈류량, 얼굴 근육 포인트 추적, 음성 상태 분석, 혈압 등을 체크하며 면접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렇게 뽑은 직원에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경영이 돈일까요. 영원히 산다면 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십년 살고 죽는데, 그렇게 깨질 인생에 돈을 담으면 얼마나 담고 명예를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버리고 사람을 쫓으면 결국 돈과 명예도 따라옵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서울시 사회복지관 25곳 긴급 보강비 투입

서울시는 사회복지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25곳에 총 3억2827만원의 긴급 보강비를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장애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해 화재가 발생하면 사상 위험이 높은 장소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관 96곳을 대상으로 긴급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를 통해 25곳의 총 29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시는 동대문구 장안사회복지관의 노후 방화문을 교체한다. 신길사회복지관에는 화재감지기, 영등포복지관에는 화재 발생 시 무선으로 열 수 있는 ‘비상문 무선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전력 공급 시설도 보강한다.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수서사회복지관에 전기증설 공사를 실시한다. 풍납복지관 케이블과 수서명화사회복지관 차단기를 교체해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를 막는다. 아울러 시는 도시가스 시설공사, 외벽 보수 공사 등 복지관 외부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보강 사업도 진행한다.

배후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긴급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연중 지속적인 긴급 기능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청년여성 100명 맞춤형교육으로 취업 돕는다

서울시, 직업교육부터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청년여성(만 18~39세) 100명을 MICE 전문가, 스마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회계 전문가, 공연기획자로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청년여성에게 직업교육부터 기업 실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교육은 4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6~9월 총 2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송파 영 MICE 아카데미 과정(25명) ▲스마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25명) ▲클라우드 기반 구글독스 활용·ERP 회계 전문가 양성 과정(35명) ▲공연기획자 양성 과정(20명)이 있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별 컨설

팅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개월간의 기업실습을 진행해 교육수료자의 50% 이상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여성이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윤희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청년 여성이 강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지원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직업훈련, 채용까지 책임지는 서울시 여성 인력개발기관 사업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선거가 준 선물... 가족 나들이 북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일대가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푸르른 6월, 도심 속 공원으로 음악여행 떠나요~!”

녹음이 푸르른 6월, 도심 속 공원으로 음악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14~22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공원음악소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의도공원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14~15일, 21~22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의 음악소풍’이 열린다.

점심시간 1시간동안 전문 어쿠스틱 밴드와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직장인 고깃상담소’도 함께 운영된다.

이날 여의도공원 어린이놀이터와 잔디광장에서는 플라스틱컵에 제라늄 등의



여의도공원 ‘정오의 음악회’ 행사 모습. /서울시

꽃을 심어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책상 화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낮 12시부터 시작해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서울공원에서 16~17일 오후 6시 ‘해질녘 음악소풍’이 개최된다. 양서·강서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현악 오케

스트라팀이 시민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 클래식을 연주한다. 행사에서는 판타마임극, 심신이완 체형 프로그램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4

6월 14일

음력 : 5월 1일

수도권 날씨

29~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7/27

동두천 18/28

가평 16/27

파주 17/28

서울 19/29

양평 18/28

인천 19/26

수원 18/28

용인 18/28

평택 18/29

백령도 16/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